

인문사회의학과 의학교육의 미래

편집부

신 간 : 인문사회의학과 의학교육의 미래
저 자 : 전우택, 양은배
출 판 사 :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 의과대학, 그리고 그들이 되려고 하는 의사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이야기

"모든 대학생 및 대학 졸업생은 의사, 치과의사가 될 수 있다 !!!"

우리 사회에 2002년도까지는 전혀 없었다가 2003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게 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의학전문대학원 대비 입시 학원"이다. 그리고 위의 문구는 그 학원 중 하나의 선전 문구이다.

IMF 및 한국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취업난이 극심해 지자, 모든 이과 계통의 대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문과 계열 대학생들까지도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의사가 되려는 것에 큰 관심들을 보이고 있다. 많은 언론에서는 서울대나 카이스트 학생들이 자퇴를 하고 의과대학 입학 준비를 다시 하고 있다는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 그

이 책은 이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과, 그 보다 더 혼란스러운 의학교육의 현실 앞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도발적으로 시작함으로써 시작한다. 의사란 과연 어떤 직업인가? 그리고 그 의사들을 키워내는 의학교육은 과연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왜 국민들은 자시 자신들은 의사들을 불신하고 비난하면서도, 자신의 자식들은 의사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가? 의과대학에서 과연 무엇을 가르쳐 내보내냐, 그 의사들은 진정 국민들의 고통에 동참해주고, "우리 의사선생님"이라는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95% 이상의 생물학적인 지식으로 구성된 의학교육 커리큘럼 속에서 인간성과 참된 가치관을 갖춘 진정한 의사를 키워내는 의학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동안 의학교육 영역에 있어 인문사회학적 교육 실시와 그 개발을 위하여 노력해 온 두 저자가 함께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과 글들을 정리하

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단지 인간의 육체만을 치료하고 돈을 받는 그런 의료기술자가 아닌, 인간의 정신과 영혼, 그리고 사회까지를 치료하는 "진정한 의사"를 키워내는 교육으로서의 인문사회의학 교육이 바로 의학교육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는 힘있는 목소리는 의학교육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의대교수님들과 의대생들은 물론이고,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예비 의료인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책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우리가 의학교육에서 [인문사회학과 의학교육의 미래]에 대해 말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이 책의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인 우리 사회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의학교육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사회가 미래의 의학과 의료에 요구하는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미래 사회에 의학교육에 요구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미래의 의사들이 가져야 하는 의학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뿐만 아니라 의학의 생물·사회·심리적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에서는 현재의 의학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의사 상과 새로운 의학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제2부에서는 인문사회의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개념 탐

색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문사회의학 교육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외국 의과대학에서의 인문사회의학 교육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의학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또한 의학교육의 철학이나 아이디어 측면에서 인문사회의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과목 개발, 교수 방법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인문사회학과 의학교육의 미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 아이디어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 책에서, 설치하는 데 수십억 달러가 드는 연구실을 우리 한국에도 만들어야만 국제 경쟁력이 있는 의대를 세우고 경쟁력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식의 제안은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경제 규모가 더 커지면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교육 자원들을 가지고서도 철학과 아이디어의 부재로 말미암아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학생들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때, 좋은 '한국형 의학교육'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미국과 같은 자분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전세계 나머지 모든 나라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의학교육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